

전차길 위를 달려보셨습니까?

서경태
IAEA 핵물질사찰관

고색 창연한 건물들 사이로 빨간색과 흰색이 어울려 있는 전차가 달린다. 전차가 달리는 주변의 노천 카페에 서는 한 중년인이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신문을 읽고 있다. 그 옆 테이블에서는 할머니 두 명이 커피를 앞에 놓고 한가로이 수다를 떨고 있다. 영화의 한 장면인 듯한 낭만적인 비엔나 시내의 모습이다.

한국에서는 전차가 사라진 지 꽤 오래되어 오십대 이후 세대들이나 서울 시내를 달리던 전차를 기억하고 있겠지만, 유럽의 도시들은 아직도 전차가 다니는 곳이 많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유럽 도시에서 달리는 전차를 생각하며 그 곳을 여행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새로운 감회에 젖기도 할 것이다.

전에 필자가 들은 얘기로는 한 도시에서 전차가 다닐 수 있는 한계는 인구가 백만 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정확히 어떤 계산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구가 그 이상이 되면 차량 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한 천천히 달리는 전차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차량이 제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전차가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이다.

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서울은 물론이고 수많은 차량으로 뒤덮여 있는 한국의 도시에서 전차가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에



서도 여러 교통 수단을 연계하여 잘만 활용한다면 도심의 일부분에 전차를 다니게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비엔나는 전차가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데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필자도 비엔나를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차를 타볼 것을 권유한다.

비엔나는 유럽의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도심 중심에 성당이 있고 이 성당을 중심으로 그 바깥쪽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구도심을 감싸고도는 'Ring'이라 불리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위를 전차 두개 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 전차를 타면 비엔나의 많은 볼거리를 편안히 구경할 수가 있다. 천천히 움직이는 전차 안에서 왕궁, 시청, 국회의사당, 오페라하우스 등 큰 건물들 뿐 만아니라 도로 주변에 있는 여러 이름난 사람들의 동상과 많은 상점들도 구경할 수가 있다.

이 전차는 원형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차길을 계속 돌기 때문에 길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친 다리를 쉬게 하는 데에도 제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타 보지 못하는 전차를 타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정취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엔나의 모든 거리에 전차가 다니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만 전차

를 운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전차와 버스, 지하철 그리고 기차를 연계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유럽의 도시들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바깥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나갔기 때문에 옛날 건물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옛날 마차가 다녔을 법한 거리들도 확장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하여 비엔나 시내에는 비좁은 도로들도 많다. 그리고 어떤 곳은 도로 폭이 좁아 전차와 버스나 자동차 등이 따로 다니지를 못하고 레일이 깔려 있는 전차길에 전차가 다니고 그 전차길 위로 버스나 자동차도 다닌다.

비엔나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심심찮게 레일이 깔려 있는 전차길 위를 달리게 된다.

그런데 자동차의 폭과 전차 레일의 폭이 거의 비슷하여 자동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때가 있는데, 그 느낌이란. 그 느낌은 달려 본 사람 만이 안다. 반질반질한 레일 위에서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찰력을 상실하여 얼음 위를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살갓 위로 칼날이 스윽 하고 지나가는 듯 섬쩍지근한 느낌이다.

필자가 낭만적인 전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썰렁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소름끼치는 느낌을 상상하면서 무더운 여름을 잠시나마 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런데 다시 읽어 보니 정말 썰렁한 글이 되어 버려 죄송한 마음 뿐이다. ☹